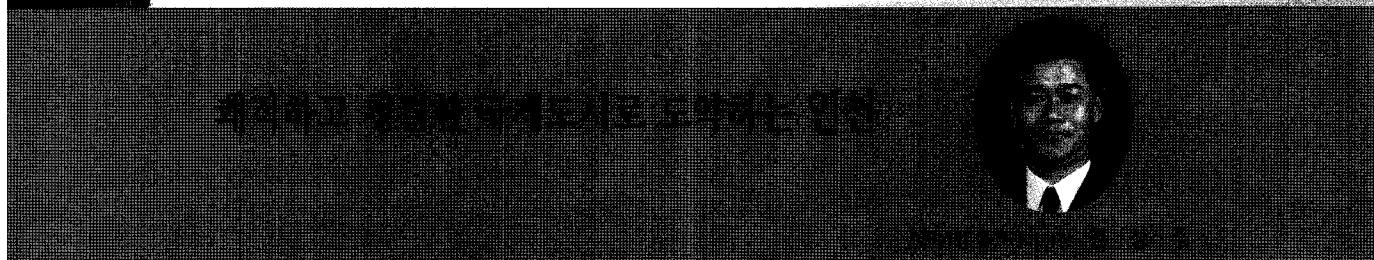


문명과 인간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환경도시 건설을 이루는 인천



우리 인천은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 등을 계기로 국제도시로서 면모를 일신하고 21세기 환경세기를 맞이하여 문명과 인간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서 시정목표의 하나로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생리해결 공간에서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문화·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권장기준(안)과 개선모델을 개발하여 화장실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누구나 마음놓고 찾을 수 있는 친숙한 문화·휴식 공간으로 정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휴식과 문화공간

화장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하는 중요한 생활공간의 하나로 과거에는 우리의 생활 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마당의 후미진 곳에서 이제는 우리 생활 공간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여 누구든지 평온하고 쾌적한 필수적인 휴식문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화장실의 개념과 이미지를 단순히



▲인천대공원 화장실 퍼우더룸

화장실 환경문화 개선

우리 시에서는 2000년을 화장실 문화개선의 원년으로 정하여 깨끗한 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중화장실 관련 시민의식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화장실문화 인천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이용자의 의식수준 향상 활동과 281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된 127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시설확충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에 2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국제도시, 개방도시, 문화도시 인천의 이미지에 걸맞도록 시민단체와 함께 깨끗한 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고 32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시설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정비·확충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업무체계 구축

그동안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정비와 행정지도가 미흡 하였다고 판단하여 우리시에서는 환경녹지국 물

관리과를 업무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시설물 관리를 부서별로 지정하여 정비를 추진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중요정비 대상 화장실 총 2,576 개소에 대하여 기관, 단체, 업소주인 등으로 개선업무 분담을 하였습니다.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화장실 문화개선 민간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화장실문화개선의 인식을 높이고 정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국제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2001. 3. 29)으로 경제 및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인천시청을 방문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 국제물류 거점도시로 도약을 준비하며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가꾸어 가는 과정을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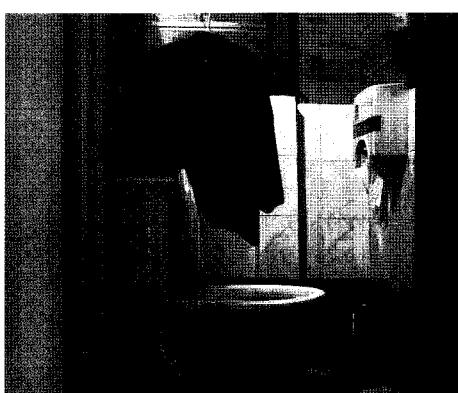
시민과 함께 개선

공공기관의 화장실만 개선하여서는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화장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표준모델 팜플렛을 제작·배부하여 시장, 주유소, 숙박업소 등 민간소유 화장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깨끗이 사용하기 캠페인 및 홍보, 유아·청소년을 위한 화장실 공중질서·청결사용 교육을 하는 등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 가꾸기 사업이 문화시민 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화장실의 신축이 어려운 시내 중심지, 재래 시장 등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유도 안내표식도 일제 정비하여 처음 오는 사람도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선정 및 시상하고 화장실 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사회적 관심 고조와 참여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월드컵문화시민인천시협의회 및 화장실문화 인천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화장실



▲빠르코 레스토랑 화장실